

동구목재문화센터, 개관 한 달 만에 안정적 정착

일 평균 이용자 42명... 계획 대비 40% 이상 높은 이용률 기록

광주 동구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한 동구목재문화센터가 개관 한 달 만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안정적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구목재문화센터는 지난해 12월 10일 개관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596명이 방문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환경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 중심으로, 지역 일상 속 문화·여가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층별 운영 실적을 보면, 2층 '목재상상놀이터'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기간에만 888명이 이용했으며, 1월 중순까지 합산하면 총 1,309명이 방문했다. 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회차별 20명 이내 소규모 운영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동구 관내 어린이집 등 단체 이용으로도 이어

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층 '똑딱 나무 교실' 역시 목공 키트 체험을 중심으로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 자동차, 구름 문패 제작부터 무드등, 원목 도마 제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개관 이후 약 한 달간 총 287명이 참여하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확인했다.

센터는 당초 목재상상놀이터 20명, 목공 키트 체험 프로그램 10명 등 1일 총 30명 이용을 목표로 했으나, 개관 이후 약 한 달간 두 공간의 일 평균 이용자가 42명으로 집계되며 계획 대비 약 40% 증가한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1층 목재문화카페(무인 자판기)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센터 방문객의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주민 대상 홍보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운영 성과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개관 이후 한 달간의



운영 성과는 동구목재문화센터가 주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세대별·수준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목재문화센터(동구 경양로 310) 2층 목재상상놀이터와 3층 똑

딱나무교실은 공식 홈페이지 사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개인은 물론 어린이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세대별·수준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목재문화센터(동구 경양로 310) 2층 목재상상놀이터와 3층 똑

북구, 구립합창단 새로운 얼굴 찾아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북구·시니어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립합창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단체다.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 2개 단체로 구분되며 매년 정기 연주회, 구 주관 행사 축하공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합창단의 새로운 얼굴들을 선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북구합창단'은 20~64세 여성, '시니어합창단'은 성별 구분 없이 65세 이상 주민이다.

서류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이며 향후 단원으로 활동 시 주 2회의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amingee@korea.kr)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하면 된다.

실기 심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북구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자유곡 1곡을 부르 뒤 최종 면접을 거쳐 신규 단원으로 선발된다. 선발 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예술과(☎062-410-8479)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경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4일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제3회 서구 마을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서구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18개 동 전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합창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을 매개로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합창단은 각종 지역 축제와 무대에 참여하며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마을합창 페스티벌은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를 주제로 18개 동 마을합

광주 서구, 18개 마을합창단 한 무대에

24일 마을합창 페스티벌...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주제

창단 단원 500여 명이 참여한다. 공연은 ▲노래하니 행복하다(농성2동, 화정1동, 서창동, 금교1동) ▲함께하니 행복하다(양동, 농성1동, 화정4동, 동천동) ▲나눠주니 행복하다(금호2동, 양3동, 광천동, 상무2동, 치평동) ▲하나되어 행복하다(유덕동, 상무1동, 화정2동, 화정3동, 풍암동)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마을별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다.

주부, 직장인, 학원 원장, 자영업자 등 다

양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주민들은 무대 위에서 하나된 하모니를 선사하며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주민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을합창단에 참여 중인 한 단원은 "우울증으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합창단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았다"며 "노래가 삶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석우 기자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

맞춤형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화순군(군부곡 군수)은 21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성인 대상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유화반과 수채화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반은 기초 이론부터 실기 기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초급·중급 과정으로 구성됐다.

유화반은 체계적인 유화 기법 교육을 통해 색채 표현과 화면 구성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수채화반은 기초 소묘와 채색 기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수채화반은 기초 과정에서 재료 사용법과 기본 표현을 익히고, 중급 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표현 기법과 개성 있는 작품 제작을 목표로 진행된다.

두 과정 모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이 수강생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인별 수준에 맞춘 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강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사 확정 후 교육 요일과 운영 기간 등 세부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며, 모집인원은 유화반 초급·중급 각 7명, 수채화반 초급·중급 각 10명이다. 수강료는 8만 원이다. /최종환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공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강화 차원에서 저시력자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 약자를 위한 화면 낭독 서비스 등을 본격 도입한다.

남구는 21일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저시력자와 장애인들이 도서관 정보와 자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6,780만원을 투입

광주 남구, 구립도서관 'PC 화면 낭독 서비스' 도입

해 정보 접근성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문화정보 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까지 관내 구립도서관 4곳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무선 전화기 형태의

소리 증폭 보청기를 각각 보급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저시력 이용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 소프트웨어로, 화면 낭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구립도서관에 있는 지정석 컴퓨터에 해

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PC 모니터에 띄워지는 각종 문자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한다. 메시지와 메일, 뉴스, 유튜브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직원과 대화가 필요할 때마다 먼 거리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리 증폭 공용 보청기도 비치한다. /임재일 기자

국민 내일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기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

금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